

부정공파 36세

권중대(權鍾大) 족친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그 엄숙한 시절의 상징인 '남영동대공분실'을 개조한 '민주인권기념관' 마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수여했다.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4.19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포상을 추진했고,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자는 고 이소선, 고 조영래, 고 지학순, 고 조철현(조비오 신부), 고 박정기, 고 성유보, 고 김진균, 고 박형규, 고 김찬국, 고 권중대(權鍾大), 고 황인철, 배은심 등이다. 살아서 받은 이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님 뿐이다.

이번 정부 포상엔 국민포장 2명, 대통령 표창 5명도 포함되었다.

‘꽃이 피었다’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다”며 “33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권중대 족친은 1936년 5월 16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2리 594번지에서 안동권씨 부정공파 35세 권도달(道達,東隲公, 1912~1991)과 무안박씨(1911~1962) 상교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했고 본명은 시둘이다. 3남 2녀의 장남이고 부인은 동갑인 선성 김씨(宣城 金氏)이고 자녀는 3녀 1남으로 아들이 막내이다.

안동고등학교를 건강상의 이유로 중퇴하고 상경하여 가정교사 등을 하다가 '재건국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사상계, 민족일보 등에도 심취하였다. 4.19 민주시민혁명에도 적극 참여하고 가나안 농군학교도 수료한다. 이후 일본 연수 영덕여중 교사를 하면서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안동가톨릭농민회를 이끌며 농민운동에 매진하고 민주화운동의 불꽃을 태우다가 2004년 사망하니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되고, 비석은 신영복 선생의 친필로 쓰여졌다.

그의 일생은 기존에 나온 것이 많으니 생략하고 그 조선(祖先)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는 권씨 15개 파조 중 주밀공파, 북야공파에 이어 인구수 3위인 부정공파인데, 그의 조상의 이야기는 피눈물의 역사이니 더더욱 오늘의 광영은 같은 부정공파이고 1978년 당시 휴가 중 고향에서 마주친 오일춘 사건 등을 집어 보니 벅차오르는 감회를 누룰 수가 없다.

그의 조상 중 안동권씨 15세 권백종(權伯宗, 권중대의 20대조)은 효자로서 정효비(旌孝碑, 충무왕 1년,1345년)가 안동민속촌에 이긴 되어 있다. 그의 아들은 권전(權專,1371-1441, 화산부원군, 16世)과 권촌(權村,진보현강 역임)이다. 권전의 딸은 단종대왕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순임(權順任,1418-1431)이고 아들은 권자신(權自慎, 1418?-1456)이다. 권촌의 아들은 세 명인데 첫째는 권저(權箸)이고, 둘째는 권서(權署), 셋째가 권책(權策, 五峰 1444- ?)이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반역 행위 후 사육신 사건으로 현덕왕후 집안이 멸족이 될 때 권전은 이미 죽었지만 관작 삭탈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현덕왕후는 묘소가 세자빈의 신분에서 사망해서 안산시 목내동 소릉지(昭陵地)에 있었으나 파묘하여 바다에 버렸다. 그리고 현덕왕후 아들 단종은 유배 후 목졸라 죽여서 청령포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히려 권자신은 능지처참, 그의 어린 차남 권구지(야맹)도 죽이고, 부인 김씨와 딸은 노비로 가고 왕후의 어머니 권아지도 노비로 했다가 처형한다. 게다가 삼촌인 권촌의 일가도 같은 운명이 된다. 권촌의 세 아들 중 두 명은 온 집안 사형으로 종결되고 당시 셋째 아들인 권책이 열세 살인데 이를 죽여야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그가 나이가 어리고 솔직히 직계도 아니고 하니 멀리 유배를 보내자고 하여 목숨은 건진다. 그 유배지가 바로 영해(寧海)땅 인량(仁良)이다. 그는 그 후 금성대군 사건이 발발되어 또 다시 참국이 벌어지자 왕암봉(王巖峰)에 올라 통곡을 하고 후에 글을 많이 썼으나 너무 불운한 내용(?)이라 자손에 해가 될까 태워버리고 장례도 간소히 하라 하고 한 많은 생을 거두고 만다.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이끈 농민운동가 권중대 선생 추모비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581번지).



1990년 4월 24일 건국대 '전국농민회 총연맹' 결성 후 초대의장에 선 출립.



안동시 성곡동 20대조 권백종 청요각.



민주주의 민족통일 개소식

권중대의 고향 영해는 영덕군의 면이었다가 '영해도호부'가 되고 안동부 관할이 되기도 하여 사실상 소안동이라 일컫고 말치도 상당한 안동과 유사하다.

권책이 영해로 와서 그 한 많은 수백 년의 시간, 22세대나 흘러서야 영해의 인물, 안동 권문 부정공파의 인걸이 나오니 그가 바로 권중대이다.

권중대의 족보를 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36세 권중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10세에 안동권문이 15개파로 갈라지기까지 가보면 다음과 같다.

권중대(鍾大)36-권도달(道達)35-권병국(炳極)34-권상전(相鎔)33-권영면(永冕)32-권석희(錫禧)31-권도조(度祖)30-권규(埵)29-권창동(昌東)28-권익령(翼齡)27-권대관(大觀)26-권복여(復興)25-권경(璟)24-권의현(宜悅)23-권응상(應商)22-권희언(希彦)21-권세평(世平)20-권인형(仁衡)19-권책(策)18-권자홍(自弘)17-권전(專)16-권백종(伯宗)15-권정평(正平)14-권휴(休)13-권경보(景輔)12- 권균필(均弼)11- 권통의(通義)10 (부정공파 파조)

여기서 권백종, 권전, 권자홍은 상당한 지위이니 빼고 그 전후를 보면 권책 이후 조용히 분을 삭이고 영해에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나마 벼슬이라고 한 것은 이 세 명이다.

23세 권익협 (1579-1644) 취옹정 (醉翁亭), 문집. 통훈대부 추증, 부인 중 숙인 영덕 김씨

22세 권응상 (1536-1600) 좌부장(左部將, 종6품 정도·지방직)

21세 권희언 별시(別侍)

또 현덕왕후 이전에 보면 대략 파조 권통의가 경기 남부로 상경하여 중앙직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고, 조금씩 계층 상승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 비록 권전의 출세로 조상을 미화한 측면도 있으나 그 래도 중앙에 기반이 있으니 충남 홍성에서 현덕왕후가 탄생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왕비까지 된다. 실은 이것도 추증이다. 문종이 세자시절에 사망하니 빈의 신분이었고 그 문종 또한 왕비를 생전에 두지 않았다.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나 인간의 운명과 역사는 참 알 수 없는 무엇이 지배한다고 봐야 한다.

14세 권정평 사제시승,판도정랑(고려 정5품, 재무부

과장급), 후에 손자 권전이 출세 공조참판 추증

13세 권 휴 승봉랑, 전의시부 (고려 종8품 문관)

12세 권경보 금자광록대부,문하시랑평장사 (고려 정2품, 장관급) 추봉이니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11세 권균필 호장(고려 세습 향리)

10세 권통의 부정공(고려 지방 양곡 계장)

대략 이런 것을 보면 600여년의 역사도 한 장의 드라마 같은 일이다. 그동안 부정공과 집안에 수없이 명멸해간 인물 중에 36세 권중대의 삶은 어떤 위치로 기억될까? 훗날 같은 1936년생이고 동창일 수도 있는 인물과 비교하여 글을 남기려고 한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 종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고, '사회적 지위나 금력이 그 사람의 인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도도히 흐르는 저 무정한 세월 속에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또 후손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권중대는 앞서 말한대로 그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서울로 와서 재건국민운동 (실행자 장준하)에 가담 '사상계' 강연을 듣고 그 '사상계 헌장'을 줄출 외우다 시피하고 1963년 김용기의 가나안농민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 농업기술 연수도 다녀온다. 그 후 영덕여중교사를 시작으로 가톨릭 농민회를 통한 농민 운동에 몸 바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인회의장>으로 그 삶의 정점을 찍는다.

이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고문으로 있다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정치적 자리를 탐내지 않고 오로지 '농민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장준하와 김용기의 청빈하고 정직하며 검약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조용수의 민족일보에 관심이 깊음은 결국 통일운동이 바로 농민운동의 종착점임을 체득하였을 것이다. 즉, 이 모든 적폐는 분단으로부터 오고 농민의 고달픈 삶도 그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에서 원가계산에서 밀린 농민이 핍박받고 고통받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가 누구임은 이제 그가 남긴 많은 말들과 행동이 있고 회고담이 있으니 보면 되고, 누군가 쓴 회고에서

‘권중대 선생을 생각해보니, ‘민들레처럼’의 노랫말을 새삼 떠올렸다.’라고 했느니...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나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모두가 흔하고 나른 들풀을 외면하는 세상. 어우러짐을 잊고 지내는, 아니 거부하는 세상. 그리고 빛나고 특별해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화려하고 잘난 세상 속에서 민들레 같은 삶을 살다 가셨던 분. 그리고 그 삶을 담은 수천 수백의 꽃씨와 같은 후배들을 있게 해주신 분.

끝으로 삶에 치이고, 일에 치여 어느덧 내가 잊고 지냈던 땅에 뿌리박은 소박한 민들레의 삶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신 분. 그 분은 권중대 선생이었다.

이제 그의 명복을 빌고 천상에서나마 흠량하시듯 그 자랑스런 훈장을 목에 걸고 함박 웃음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한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한 자락이 마무리 될을 지켜보면서 백만 족친과 함께 웃기를 어미고 자 한다. 역사는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글 권오철 기자〉

권중대 선생 약력	
1936년	5월 16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출생.
1960년	재건국민운동, 농촌자원지도자 활동
1966년	영해제일고등국민학교 교사
1970년	전국농민기술자협회파견 일본 농업 연수
1971년	영덕여자중학교 교사
1977년	한국가톨릭농민회 활동 시작, 경북연합회 이사
1978년	안동교구연합회 초대 회장, 전국부회장
1989년	전국농민운동연합 부의장 및 전농청립준비위원장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의장(2대 의장 연임)
19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초대 의장(2대 의장 연임)
1992년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공동의장
1993년	민주항쟁기념국민위원회 창립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
199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지도위원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고문
2004년	1월 4일 작고
2004년	1월 7일 민주사회장

권기의 영가지永嘉志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3)

국립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권기대 교수

「영가지」, 편찬의 장소마케팅

「영가지」는 조선시대 1608년 권기에 의해 편찬된 일종의 ‘안동 읍지’이다. 그가 남긴 주요 저서는 「안동권씨을사보」, 「영가지」, 「용만선생문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필한 장소는 오늘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를 탄생시킨 지역적 명소로서 장소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의 풍속교회차원에서 「안동권씨을사보」16권의 집필이다. 그는 1593 년(선조 26년) 47세 때, 부친의 3년 탈상을 마친다. 과거 및 조정 진출의 체면과정 속에 48세(선조 27년) 즈음, 침거를 계획했으나 만취당 권을 장군이 태사묘를 방문하면서 권기에게 족보 발간의 권유로 1602년(선조 35년) 56세까지 8년 동안 「안동권씨을사보」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기의 집필 현장은 오늘의 행정구역인 풍산을 막곡리이며, 청성산을 북면에 두고, 낙동강을 전면에 볼 수 있는 배산임수의 풍수로 아름다운 곳이다.



자료 : 안동시 서후면 교리에 위치
〈그림. 3〉 「영가지」 지지(地誌) 명칭 결정의 한서재

둘째, 권기는 「영가지」 8권 4책(1608년)의 편찬 동기는 정계에서 은퇴하고 향리에 거주하고 있던 서애(西厓) 유성룡(1542년, 중종 37년~1607년, 선조 40년, 66세)으로부터 1602년(선조 35년) 같은 해 겨울에 지역의 ‘지지(地誌)’를 편찬할 것을 권유받는다. 여러 번 정중하게 거절하다가 제자로서 예의를 다하여 스승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1532년, 중종 27년~1587년; 권기의 3종조부, 작품은 경기체가의 변형형식인 ‘독락팔곡’과 연시조인 ‘한거십팔곡’이 「송암집」에 전함)의 아들 매호(梅湖) 권행가(權行可, 1553년, 명종 8년~1623년; 권기의 「영가지」, 편찬에 크게 기여. 권기의 3종숙, 문집은 「매호일고」가 있음)와 〈그림. 3〉의 1551년에 지은 ‘한서재(寒樓齋)’에서 ‘지지(地誌)’의 명칭을 논의한 뒤 끝에 「영가지(永嘉誌)」로 명명하고 편찬을 시작한다. 권기가 1608년(선조 41년, 63세) 때, 7



자료 : 안동시 풍산을 막곡리에 위치
〈그림. 4〉 「영가지」 집필의 ‘졸루정’ 졸루정기(拙陋亭記)에 따르면, 큰아들 사막(思邈)이 권기를 위해 지은 누각으로 북쪽은 온돌방, 남쪽은 마루로 설계되었다. 방의 길이는 4척(30.3cm×4척)이 조금 안 되고, 넓이는 2척(30.3cm×2척)에 불과. 높이는 5척(30.3cm×5척)으로 사람이 서려고 하면 머리를 부딪치고 앉으려고 하면 무릎이 서로 닿을 듯함을 뜻함.

년의 세월을 거쳐 〈그림. 4〉의 ‘졸루정’과 〈그림. 5〉의 ‘청성서원’을 오가며 「영가지」를 편찬·완성하였다. 물론 1607년 서애 선생의 별세로 교열 의뢰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안동부사로 부임한 한강 정구(鄭逵)(1543년, 중종 38년~1620년, 광해 12년)는 「영가지」초고본 8권 4책을 열람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 10인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권기가 「영가지」편찬을 총괄했고, 조력자 제지사족 10인(人)은 오우당 김근, 갈봉 김득연, 도현 류우장, 진성 이의준, 연여정 권오, 전주 이혁, 흥해 배득인, 고성 이적, 안동 권극명, 일직 손완 등이다.

셋째, 권기는 〈그림. 6〉의 ‘산천재’에 머물면서 자연을 친구삼아 노후를 보냈다. 15년 동안 「안



자료 : 안동시 풍산을 막곡리에 위치
〈그림. 5〉 「영가지」 집필 장소의 ‘청성서원과 권호문 산소’, ‘청성서원초창기사’에 따르면, 권기는 송암 권호문을 숭모하여 63세 되는 1608년(선조 41년)에 유림의 대표로 발의, 청성서원을 연어헌(鳶魚軒) 옛 터에 건립, 1612년(광해군 4년) 권호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왔다. 청성서원은 1985년 8월 5일 경북 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되었다.



자료 : 안동시 길안면 대리사에 소재
〈그림. 6〉 산천재



(좌) 1800년대 추정 (우) 2011년 08월 05일 발간
〈그림. 7〉 「용만선생문집」

동권씨을사보)와 「영가지」로 득의작(得意作)함에 따라 눈이 침침하였지만, 〈그림. 7〉에서처럼 「용만선생문집」 2권 1책을 남겼다. 1800년(정조 24년) 후손 윤신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종수의 서문이, 권말에 김도형·유규·권방·김굉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 1~2에 시 225수, 잡저 6편, 부록 묘지명 1편, 묘갈명 1편, 지(識)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분량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저자의 시에 대한 조예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효우(暁雨)’ · ‘종숙(種粟)’ · ‘즉사(即事)’ · ‘희우(喜雨)’ 등에는 당시 농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또한 ‘서회(敘懷)’ · ‘병음(病吟)’ · ‘병중유감(病中有感)’ · ‘상시(傷時)’ 등에는 불운한 선비의 강개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 밖에 이항(李滉)·이언적(李彦迪) 등 선현들을 추모하는 시들을 엮볼 수 있다.

잡저의 ‘근독잡(謹獨齋)’에서는 홀로 있을 때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신의 수신철학을 담았다. ‘청성서원초창기사(靑城書院初享記事)’는 송암 권호문을 모시는 청성서원 건립의 배경 그리고 건물의 구조·자재·설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로, 당시 서원건립의 개황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자기의 일생을 기록한 ‘자지(自誌)’와 안동권씨족보를 편찬하게 된 계기와 의의 그리고 편찬과정 등의 시말을 기록한 ‘권씨족보서’, 안동의 역사·풍물·지리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영가지」를 만들고 쓴 「영가지서」가 있다. ‘우음(偶吟)’에는 권기의 「영가지」 편찬에 따른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